

정치적의욕을 높인 한국여성의 변화

1.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필요성

1.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필요성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실정적인 바탕으로)

여성 정치역량의 현주소

1980. 12. 12. 14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성 정치참여: ① 높은 정치적 자각

② 정치참여의 욕구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

이름이 ...

해방후 우리나라의 정치사는 외세를 등에 업은 반 민주적 정권의 수립, 군사정권의 무력쿠데타, 정권유지를 위한 인권탄압등으로 점철되어왔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란 우리나라 민들, 특히 여성들에게는 권력장악을 위한 시이소오게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정치란 삶의 조건을 창출하는 작업이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여성들은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야만 한다.

그 첫째 이유는 인구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대표성 문제로서 여성들이 자기의 삶의 조건을 자기가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수립에 생명을 보다 경외하는 여성의 시각이 필히 가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도덕성을 지닌 여성의 참여로서 오늘의 잘못된 정치풍토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여 방법: ① 여성운동 → 집단행동으로 해가짐
② 정당참여 → 정책, 후보추천
③ 의회진출 → 입법기구, 국정참여

여성의 정치의식:

→ 4대간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1980. 12. 12. 14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초의원 2명 당선

이번 기초, 광역, 14대 국회의원 선거등 3대 선거를 치르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 의식은 매우 고조되었다. 실제로 선거현장에서 살펴보면 여성들이 집회군중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여성이 없이는 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여성들의 참여가 여성의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큰 문제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정치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켜 여성이

정치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은 실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국회에 진출했던 여성의원들이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창구가 되지 못했던 까닭도 있다.

성폭대당
노동당
정통당이후

한일, 당 → 정대

성폭대당
노동당
정통당이후
한일, 당 → 정대

1963-6대

1% → 4%

1948 (3월 5일) 13대

총선거 27 35 11% → 52

지역구 16 17%

71 (28대) 8대

88 13대

1975-12% 1980-20% 이상
89-15%

일본대선 30% 이상 10% 30% 이상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남성주도의 정치권이 갖는 여성유권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비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0대국회에서는 여성의원이 8명으로 전체의 3.5%였고, 11대는 9명으로 3.3%이며, 12대는 8명으로 2.9%이고, 13대는 6명으로 2.0%이며 14대는 3명으로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투표권행사가 현 정치구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남성주도의 정치권이 여성공약은 선심용으로

선거제로 19대부터 여성공천은 생색내기용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선거제로 19대부터 선거제도, (내외구분) 기

지역구를 정함

* 여성화한 선거제도 24대부터

공천방식:

① 선거구 < 소-여성 정치참여 대책과 과제

중대

지역구 → 지역구 → 지역구 → 지역구

지역구 → 여성화한 선거제도 여성의 정계진출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당면하게는 현재와 같이 선거를 돈으로 치뤄야 하고 지명도가 크게 문제가 되며 최고 득표자 1명만이 당선되는 선거풍토와 제도하에서 자유경선을 통해 여성이 의회에 진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이권투구의 현장에서 자금동원력도 떨어지고 남성에 비해 권모술수에 약한 여성들이 어떻게 그 관문을 뚫을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 선거공영제등으로 공명선거의 정착, 중선거구제의 도입, 그리고 직능대표성을 갖는 비례제의 도입등 선거법, 선거제도, 그리고 선거풍토가 개선되어야만 한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진 다. 우선은 여성의 의회진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치고 여성대표를 직접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그간 올바른 정치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투표권이 여성 정책과 연결되는 운동을 해야한다.

사회운동의 대의명분에만 집착하여 실질적인 여성의 이익을 상실한다든지, 구체적 정책에 상관없이 정당을 선택하는등의 시대는 이제 지났다. 무엇이 여성의 권익신장에 도움을 주는것이냐가 바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모든 전략과 전술의 잣대가 되리라.

현행 선거제도: 대의명분만 → 구체적 이익 실현

여성화한 선거제도

여성화한 선거제도,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여성정치적 위상 상승
 1. 여성정치권 확대
 2. 여성정치인 육성
 3. 여성정치인 지원
 4. 여성정치인 교육
 5. 여성정치인 네트워크 구축
 6. 여성정치인 리더십 강화
 7. 여성정치인 정책 개발
 8. 여성정치인 홍보 활동
 9. 여성정치인 선거 운동
 10. 여성정치인 당선 후 활동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뿌리깊게 여성의 의식속에 자리잡아 현재 정치가 가져다주고 있는 여성의 삶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정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여성들은 오랜 세월동안 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포기했었다.

그러나 13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우선 37년간 온 여성들의 숙원이었던 가족법이 개정되어 재산상속을 위시한 가정내 모든 가족들의 민주적 관계가 수립되고, 남여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여성이 취업에 있어서 성차별을 받지 않는 법이 마련되었으며 비록 날치기로 통과되었으나 영.유아보육법이라는 이름으로 육아의 문제가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국고에서 탁아소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출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물론 이 모든 조치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남여고용평등법이 현실속에 정착되는 방안, 국가지원의 탁아소 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탁아소를 필요로 하는 더욱 많은 아동을 보호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조치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외곽에서 여성단체의 압력과 원내에서 여성의원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대국회가 보여주지 못했던 이러한 여성정책의 발전은 여성들의 바른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여성정치적 위상 상승 → 여성정치권 확대 → 여성정치인 육성 → 여성정치인 지원 → 여성정치인 교육 → 여성정치인 네트워크 구축 → 여성정치인 리더십 강화 → 여성정치인 정책 개발 → 여성정치인 홍보 활동 → 여성정치인 선거 운동 → 여성정치인 당선 후 활동

여성의 정치현황과 문제점:

여성정치적 위상 상승: 1. 여성정치권 확대 2. 여성정치인 육성 3. 여성정치인 지원 4. 여성정치인 교육 5. 여성정치인 네트워크 구축 6. 여성정치인 리더십 강화 7. 여성정치인 정책 개발 8. 여성정치인 홍보 활동 9. 여성정치인 선거 운동 10. 여성정치인 당선 후 활동

이렇게 여성의 정치의식은 더욱 확대되고 그 필요성도 더욱 증가되는데 반해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기회는 더욱 좁아져만 가고 있는 것을 여성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13대 총선의 경우 14명이 지역구에 출마하여 낙선되었고, 14대에는 19명이 뛰었으나 단 한명도 지역구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전국구의 경우도 대부분이 당선안전권 밖에 배치돼 여성을 구색맞추기용으로만 취급하는 정당의 시각을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14대에는 여성의원 13대 때보다 절반이상이 줄어든 3명 뿐이다. 그나마 이들중 두명은 문화계와 의료계의 직능대표적 성격을 띄어 여성정책을 입안할 여성 의원은 1명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성 의원의 산술적 수치축소가 여성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것임을 우려하는 많은 이들의 소리가 기우이길 바랄뿐이다.